

여러분의 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들이 탄 배를 이리 저리 흔들고 있었으며,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노를 저었지만, 오 육 킬로미터 정도 밖에 나아 갈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대인관계, 가정, 학교, 직장, 재정, 건강 등의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문제들은 바다에 이는 풍랑과도 같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힘겹게 애쓰는 동안에도 걸으려는 용감한 척하지만, 내적으로는 고통받고, 지치고, 낙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를 걸으실 수 있으며, 모든 파도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들은 그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로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안으로 들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다를 대항하여 노를 젓느라고 힘겹게 애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지금 초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음과 같이 단순히 기도 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낯은 사람으로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으며, 지금 당신을 받으드립니다. 저를 평안이신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인생의 여정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WWW.BFA.ORG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Living Stream Ministry에서 출판한 신약성경 회복역의 요한복음 6:16-21의 각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Bibles for America (BfA)는 미국 전역에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P.O. Box 17537, Irvine, CA 92623. 888.311.0571

© 2015 Bibles for America.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